

시대적 배경과 주거건축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Residential Building by Time Period

전 범 우* 최 문 규** 이 낙 운***
Jeon, Beom-Woo Choi, Moon-Kyu Lee, Nak-Woon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changes of residential building characteristics in period classif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uring Joseon dynasty, it is judged that the social changes in the ideology of ruling classe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traditional residential style.

The mid period and latter period of Joseon, it is changed toward horizontal and practical residential layout in place of confucian courtesy based style.

During port opening period, the traditional residential style was remodeled through addition of glass panes to inter-chamber floor in tune with the influx of modern materials and ideologies like glass or cement etc.

The Japanese ruling era of Korea period, the modern housing style of room separation type was settled.

키워드 : 시대구분, 시대적 배경, 주거건축

Keywords : *period classification, periodical background, residential build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적인 주거건축은 한반도의 인류출현과 함께 시작하여 한국인의 정서나 기후 등 인문·환경적 특성을 흡수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일본 및 서구열강의 이권침탈과 일본의 식민지배시기에 들어온 근대 건축문화는 지배세력의 이권을 위해 실용성을 강조하며 전통주거문화를 잠식해왔다. 더불어 이후 발생한 한국전쟁을 통해 전통적 도시는 파괴되고 과거와는 단절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대의 주거건축은 크

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으로 구분되며 획일적인 평면 구획에 의해 도시의 삶을 건조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통적 형식과 서양의 형식이 혼재되어 그 정체성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통 주거건축의 시대적 배경변화에 따른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별 특징적 요소를 추출·분석함으로써 단절된 전통 주거건축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기초적 자료 구축과 정체된 현대 주거건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주거건축의 공간특성 변화에 관한 분석을 위해 남한 내륙지역에 위치한 양반 또는 시대별 지배계층의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사례 대상을 선정하였다. 시대별 지배계층의 주거는 서민주거에 비해 특정한 지역적 편차를 가지고 있지 않

* 강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부 박사과정

** 최문규 건축사사무소 소장, 건축사

***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는 특성이 있으며 피지배층의 주거건축에 영향을 주고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시대별 주거건축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먼저 사례 대상 건축물의 분석을 위한 틀 설정을 위해 기존 연구논문을 고찰한 후 본 연구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는 시대적 배경변화에 따라 조선전기, 조선중기 I, 조선중기 II, 조선후기, 개항기, 일제강점기의 총 6단계의 시대구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이후 시대구분별 주거건축의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각 시기별로 축의 설정, 건물 분화특성, 평면형태, 배치형식, 완충공간 및 연계공간의 5개 요소를 기준으로 각 사례를 분석하여 시대구분별 공간특성과 변화를 고찰하였다.

2. 시대구분

2.1 한국건축사의 시대구분

한국건축사의 시대구분은 한국사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로써의 지적대로 역사는 연속적인 것이어서 한 시대와 다른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또는 서술하기 위해 사고의 테두리로서, 또는 수긍할만한 주관적 가설로서 시대구분이 필요하다[1].

기존연구의 한국건축사 시대구분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한국사 또는 한국건축사에서 사용한 왕조중심의 시대구분이다. 이는 왕조별 시간대 구분이 명확하므로 객관적인 시간 개념의 정의가 가능하기에 혼돈의 여지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한 왕조의 정치 시기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왕조가 없어진 근대 이후로는 단절된다는 단점이 있다[2].

두 번째는 대부분의 역사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삼분법적 시대구분의 방법으로서 원시시대, 고대, 중세, 근세 또는 더욱 세분하여 나누고 사회변동과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시기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변동이나 정치상황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사적 변화에 적용시키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는 목구조 양식사로서 목구조 기술의 형식체계를 양식의 개념으로 파악한 구조양식사라 할 수 있다. 시대적 환경의 변화나 사상체계 등 배경적 외연과는 무관하게 순수히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건축의 자율적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번째는 자율적 건축사의 시도로서 왕조별 정치적 변화가 건축기법이나 양식을 곧바로 변화시

키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고, 정치적 이유보다는 문화의 추이 또는 건축경제의 추향, 그리고 종교사상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3]한다는 이론으로서 건축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지배세력의 변천과정에 기반하여 한국사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시도[4]한 것이다. 이를 통한 건축사의 기존 연구는 조선시대에 국한하여 적용하여 건축사 전반의 시대구분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표 1 한국건축사의 시대구분[5]

구분	의의	연구자	출전
왕조사	객관적 시간개념	김원룡	한국미술사
		박연곤	한국건축사 강좌
삼분법	보편적 시대구분	윤장섭	한국건축사
		김홍식	한국건축사 연구의 반성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목구조 양식사	건축기술체계의 시기구분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자율적 건축사	건축을 중심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구분	신영훈 강영환	한국문화대계Ⅳ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지배 세력의 변천	향촌 지배 세력의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가 건축형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
		전봉희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2 조선시대 건축사의 시대구분

조선시대의 시대구분은 박연곤[6]에 의한 2단구분법과 윤장섭[7]의 3단 구분법이 대표적이다. 2단구분의 경우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건인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2분하고 있다. 3단구분의 경우는 조선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있으며 문화·정치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8].

3단 구분이지만 이와는 다르게 중심 지배계층의 변천에 따라 조선시대를 구분한 연구는 씨족마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전봉희[9]와 전통마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신진동[10]의 연구가 있다. 전봉희의 연구는 시대구분에 있어 역사의 주체적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백성들의 생활을 고려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김인걸[11]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 향촌의 지배세력 변화를 기준으로 조선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

다.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인 이족이 중심세력이던 14, 15세기를 전기, 사족의 중앙정계진출과 향안(鄉案)과 동계(洞契)를 바탕으로 향촌사회의 지배력을 유지한 16, 17세기를 중기, 지방통제 강화 정책과 ‘이향(吏鄕)’층의 향권 참여, ‘부농(富農)’층의 동요와 신분상승 등의 시기인 18, 19세기를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림의 정계진출과 향약의 보급이 이루어진 조선 중종(中宗:1506~1544) 이후부터 탕평책이 구상되고 실학의 기운이 시작되는 영조(英祖:1724~1776)이전까지를 조선중기로 설정했다. 또한 조선중기를 다시 상속형태에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후로 구분하고 있다. 조선전기는 성리학이 보급과 수용이라는 특성을 갖으며, 중기는 중국으로부터 소개된 성리학이 우리 것으로 제도화되어 사림세력들의 중앙진출과 맥을 같이하며 사림층의 성립과 확산의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후기는 전반적인 신분상승과 조선중기 이후 예학의 발달과 함께 이들 성리학적인 질서가 민간에 널리 유포되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12].

표 2 전봉희의 시대구분

시대구분	특징	비고
조선전기 (1392-1506)	성리학의 보급과 수용	
조선중기 (1506-1776)	성리학의 제도화	임란전과 후로 구분
조선후기 (1776-1910)	성리학이 민간에 널리 유포	

신진동의 시대구분은 전봉희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를 크게 전기, 중기, 후기 3단으로 구분하고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중기를 임란전중기와 임란후중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봉희의 성리학적 측면을 참고로 사상적 부분과 경제적 부분 그리고 인구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기는 기존 훈구세력의 견제를 위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중기는 다시 임란전과 후로 나누어 지는데 임란전중기는 기묘사화로 인해 향촌사회로 물러난 사림세력이 향촌을 기반으로 정치력을 키우는 시기이며 임란후중기는 16세기부터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한 지방 사족을 바탕으로 한 봉당정치가 이루어지고, 농민들은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통해 스스로 경제 성장과 사회 변동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서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온 시기로 구분하였다. 후기의 구분은 잉여 생산물의 증가에 따라 17세기 말 상평통보가 유통되어 이후 화폐경제가 성장한 시기로 구분된다. 화폐경제의 성장은 중세 봉건적 조선사회를 무너뜨리는 한 계기가 된

대동법의 전국적 시행을 가능하게 하였고 대동법 이후 사림세력의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실학사상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신진동의 조선시대 시대구분을 정리하면 역사적 사건과 향촌의 지배세력 그리고 경제개념을 바탕으로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임진왜란이란 중요사건을 바탕으로 중기를 임란전과 후로 구분하여 조선시대를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표 3 신진동의 시대구분

시대구분	역사적 사건	향촌지 배세력	경제개념
전기(1392-1519)	기묘사화 이전	훈구	자급적 생활
중기 (1519- 1708)	1519- 1592 임란 전	사림	잉여생산물 증가
	1592- 1708 임란 후		
후기(1709-1910)	대동법 시행 후	실학자	화폐경제 발전

2.3 본 연구의 시대구분

본 연구는 시대 구분의 방법론 자체보다는 통시적 흐름에 따른 건축의 특성 변화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시대구분에 얽매이기 보다는 역사의 흐름과 배경에 따라 건축의 변화특성을 연구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건축사의 변천과 흐름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시대구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 연구의 시대구분을 참조하여 본 연구를 위한 합당한 시대구분 틀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시대구분의 범주는 특정한 경계로 작용하기 보다는 시대구분의 틀과 방법을 이해하고 조선시대 이후의 건축 특성 변화에 따른 배경으로 활용하고자 설정하였다. 먼저 한국건축사 전반의 시대구분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정치·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시간개념이 명확한 왕조별 시대구분 방식을 도입하고 시대별로 세부 구분한 주남철의 한국건축사 시대구분 틀[13]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은 조선시대의 시대구분은 역사적 사건 및 사회의 지배세력 그리고 경제개념의 변화라는 요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신진동의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시대구분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대구분은 큰 틀에서는 왕조사적 구분의 형식을 갖추며 정치·사회적 배경을 초점으로 그 속의 세부 구분을 갖는 형식을 취한다. 조선시대의 세부 구분은 전쟁이나 정치적 개혁 이후의 변화, 사회 지배세력의 변화, 그리고 경제개념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의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일본

및 서구열강의 이권침탈이 집중되었던 시기로 세부 구분을 통하여 대한제국시대를 포함하는 1910년까지 개항기로 구분하였다. 이후 1910년부터 1945년은 일제강점기로 구분하였다.

표 4 주남철의 시대구분

시대구분	세부구분	기 간
선사시대	구석기	기원전 60만년경 - 1만년경
	중석기	기원전 1만년경 - 6천년경
	신석기	기원전 6천년경 - 1천년경
	청동기	기원전 1천년경 - 300년경
성읍국가 시대	고조선	기원전 4세기경 - 108년
	부여	기원전 2세기경-서기 494년
	삼한	기원전 3세기경-서기 369년
삼국시대	고구려	기원전 36년-서기 668년
	백제	기원전 18년-서기 663년
	신라	기원전 57년-서기 675년
남북국 시대	신라	서기 676년-서기 935년
	발해	서기 699년-서기 926년
고려시대		서기 918년-서기 1392년
조선시대		서기 1392년-서기 1896년
대한제국		서기 1897년-서기 1910년
일제강점기		서기 1910년-서기 1945년
대한민국		서기 1945년-현재

표 5 본 연구의 시대구분

구분	시대구분		구분 기준
	세부구분	년도	
조선시대	조선전기	1392-1519	기묘사화 전
		1519-1592	임진왜란 이전
	조선중기	1592-1708	임진왜란 이후
		1709-1876	화폐경제의 발전, 대동법 시행
1392 - 1896	조선후기	1876-1896	조일수호조약 이후
		1897-1910	대한제국 선포 이후
대한제국 시대	개항기		
일제 강점기	일제	1910-1945	한일합병 이후
	강점기		일본의 국권침탈

3. 시대적 배경변화

3.1 조선시대

14C말부터 시작하는 조선초기의 주거건축은 온돌과 마루로 구성된 개방성과 폐쇄성이 공존하는 중정형 반가형식의 주거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조선중기 I인 16세기는 향촌기반의 사림세력이 성장한 시기로 지방 양반 주택의 성장과 씨족마을이 형성된 시기이다. 지방의 양반은 농촌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살림집을 바탕으로 한 소박하지만 사대부의 품격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지방의 반가는 시골의 목수나 사찰의 승장이었기에 서울 장인의 수준과는 격차가 있었으나 각 지역의 토착성을 갖고 있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ㄱ'자 형태의 폐쇄적인 평면이 주류를 이루고 경사진 지세를 이용한 주택이 많고 호남이나 충청도는 'ㅡ'자 형태의 개방적인 평면형식을 나타낸다.

조선중기Ⅱ인 17세기에는 주자가례의 예학에 따라 주택의 형식이 일부 바뀌게 되는데 안채의 동쪽에 가묘를 세우거나 집객 장소와 제사 준비공간으로서의 사랑채 인식이 바뀌면서 사랑채의 규모나 장식이 화려해지게 되었다. 또한 17세기 이후 제사의 의무와 권리를 지닌 장자에게 재산 상속권이 넘어가면서 같은 핏줄로 이어진 씨족간의 번성이 촉진되었다. 씨족마을은 풍수지리와 같은 전통적 지리관과 선비들의 은둔적 자세 또는 잦은 전란에 따른 영향으로 산을 등지고 넓은 경작지를 긴 산자락 아래에 살짝 가려진 곳에 형성되었다. 마을에는 서원이나 정려각, 제각, 정자 등을 세워 중가를 중심으로 교육, 휴식, 집회 또는 종교적 중심적 역할을 위한 유교적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정신적 감화를 꾀하였다.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18~19세기에는 기존의 양반사회의 분화로 인해 농민들이 성장하고 화폐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상류주택은 전반적으로 본래의 절제와 격식보다는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치장이나 쾌적한 실내 구성을 추구하는 세련미 넘치는 건축으로 변화하였다. 즉 예의 절차에 얽매이기 보다는 연못을 조성하거나 누마루를 덧붙여 주변 경관을 조망하고 휴식하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농민층이나 중민 계층의 주택도 규모나 공간의 향상이 두드러진 시기로서 농촌 지역의 중·상류계층 주택은 독립된 사랑채나 사랑방을 형성하기도 하는 등 반가의 형식을 모방하였으나 유교적 예의체계 형식이 아닌 수평적·실용적인 주거구조로의 변화를 추구했다 [14].

3.2 개항기

조선 상류계층으로서 양반주거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ㄱ'자 형의 살림채와 별동의 사랑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개항기의 주거건축은 지역 자영농계층에서 성장한 부농계층의 서민주거의 유형을 모체로 하고 상류주택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5]. 그러나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문물이 개방되고 일본과 서구의 건축문화도 도입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자국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관과 함께 상업시설, 근대 교육시설을 도입했다.

주택에 있어서도 서양의 양식들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개항에 따라 외국인들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고 우리의 주거형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일부 지식인들은 전통주택에 있어서의 채광이나 환기 등 위생적 문제를 들어 일본이나 서양 주택과 비교해 재래주택을 도외시하였다[16]. 이에 일부 계층에서는 대청이나 마루에 유리문을 달아 개조하는 등 내부중심의 독립적 주거형식으로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부 개화파 세력이나 또는 외국인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일반인들의 생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유리나 벽돌, 시멘트 등 부분적인 재료의 사용에 따른 변화만을 남겼다.

3.3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초 일본의 토지수탈과 일본의 군수산업시설 건설에 따른 상공업의 발달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소작농이나 빈민의 몰락을 초래하여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급증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조선시기계획령과 토지구획사업에 따른 대규모 주거지 형성은 주택건축업자들에게 부의 축적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에 따라 집장사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기존의 중류계층의 집을 모방하여 같은 형식의 개량 한옥들을 건설·매매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은 외형적으로는 전통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주택의 전통적 생산방식이 매매에 의한 상품가치로 전환되었기에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건설이 촉진되었으며, 도시의 좁은 필지와 가로체계에 맞추어 계획되면서 전통적 공간구성과 유기적 공간의 위계는 점차 와해되어 갔다.

이와 함께 1941년 조선총독부는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주택영단(朝鮮住宅營團)을 설립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시멘트 기와나 콘크리트, 유리 등 근대적 건축요소를 일반에까지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일부 상류계층에서는 한국인 건축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거형식인 문화주택을 짓게 하였다. 이는 서구적인 건축지식에 의한 한국인들의 주거문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의 슬라브 건물이나 시멘트 기와지붕의 벽돌집, 2층구조등과 같은 형태적 방법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식당의 분리, 내부화장실 및 현관설치 등의 공간적인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었다[17].

4. 주거건축의 변화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주거건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시대구분을 통해 각 시대의 주거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제주

도와 북한지역을 제외한 남한내륙지방에 분포하는 주거건축을 대상으로 주거 사례를 선정[18]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례별 축 설정, 분화형식, 평면형태, 배치형식, 완충공간, 경계공간 등의 속성을 평면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공간특성의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표 6 분석형식에 따른 구분

분석형식	형식별 구분
축	직교축, 꺾은축, 튼 직교축
분화형식	실분화, 채분화(별동형, 별동조합형)
평면형태	‘—’자형, ‘ㄱ’자형, ‘ㄷ’자형, ‘回’자형, ‘ㄴ’자형, ‘凹凸형’
배치형식	위계적 구성형, 중심공간형
완충 및 연계공간	마당, 마루, 현관, 배란다 등

분석과정은 사례별 축의 설정, 분화형식에 따른 구분, 평면형태, 배치형식, 완충공간, 연계공간을 고찰하고, 각 분석형식에 의해 축의 설정은 직교축과 꺾은축, 튼 직교축으로 구분하고 건물 분화는 채분화와 실분화로 나눈뒤 채분화는 다시 별동형과 별동조합형으로 구분한다. 평면형태는 기단의 구성형식에 따라 ‘—’자형, ‘ㄱ’자형, ‘ㄷ’자형, ‘回’자형, ‘ㄴ’자형, ‘凹凸형’ 등으로 구분하고 배치형식은 단 차이나 공간의 깊이를 조절해 위계적 구성을 하는 위계적 구성형과 중심공간을 통해 공간이 분배되는 중심공간형으로 구분한다. 완충공간과 연계공간은 평면 해석을 통해 마당이나, 마루, 현관 등 주거의 보조기능을 가진 공간을 파악해 완충과 연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을 추출한다.

4.1 조선시대

조선전기는 월성 손동만가옥, 관가정 등을 포함하여 모두 4개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조선전기의 경우 현존하는 반가형식의 주거사례가 많지 않아 사례분석을 통해 조선전기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기는 근거가 미흡하나 조선시대 반가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직교축 상에 채분화하면서 별동이 조합하는 형식의 ‘回’자 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형식별로 살펴보면 축과 평면형태는 거창 같게 리 임씨고가가 꺾은축에 별동형 채분화를 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례는 모두 직교축에 별동조합형의 채분화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월성 손동만가옥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모두 출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위 위계의 장소에 사당을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충공간과 연계공간의 역할은 모두 대청이나 마루 그리고 마당을 통해

안채와 사랑채 등의 가사공간과 사회공간 또는 외부와 내부를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조선전기의 사례분석

구분	건축사례	평면
조선 전기 (1392 - 1519)	월성 손동만가옥	
	안동 김씨 종택	
	거창 갈계리 임씨고가	
	관가정	

조선중기는 기묘사회를 통해 중앙정계에서 물러난 사림세력이 향촌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중기 I 과 중기 II로 나뉘게 된다. 특히 중기 II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다시 중앙으로 진출한 사족의 봉당정치가 이루어지고 농민들의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조선중기의 사례분석은 중기 I 4개, 중기 II 4개를 합해 모두 8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조선 중기 I 은 직교축을 기반으로 사선축을 사용한 꺾은축의 사례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직교축을 통해 건물의 구성이 이루어진다. 건물분화 형식은 모든 사례에서 채분화를 통한 별동조합형식의 '回'자형을 기반으로 한 평면형식이 나타난다.

배치형식은 대부분의 사례가 주출입구에 근접한 행랑채에서 사랑채, 안채 그리고 사당으로 진입하는 형식의 위계적 구성을 띄며, 완충공간과 경계공간은 모든 사례에서 마당과 마루를 통해 공간이 흐름과 연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8 조선중기 I 의 사례분석

구분	건축사례	평면
조선 중기 I (1519 - 1592)	양동 낙선당	
	성성재 종택	
	안동 경류정 종택	
	예천 권씨 종택	

조선 중기 II 역시 중기 I 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축의 사용은 직교축을 주로 사용하며 직교축과 꺾은축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연축에 대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채분화 형식과 평면형태에 있어서도 별동조합형의 '回'자형을 기반으로 한 형식이 주를 이루며 별동형 형식의 'ㄱ'자 또는 'ㄷ'자형의 형식이 또 다른 특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배치형식에 있어서는 위계적 구성형식으로서 다양한 평면형태를 가지며 유교의 사상체계인 예의관계에 따라 출입구에서부터 사당에 이르기까지의 공간의 전이를 위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조선중기 II의 사례분석

구분	건축사례	평면
조선 중기 II (1592 - 1708)	안동 충효당	
	강릉 선교장	
	해남 윤씨 녹우당	
	함양 정병호 가옥	

조선후기는 전국적인 대동법의 시행과 화폐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봉건적 조선사회가 붕괴되는 시기이다. 사립세력의 기반은 약해지고 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경제적 기반을 쌓은 부농이 반가의 형식을 모방한 주거형식을 채용하기 시작한다. 또한 실학사상의 대두로 유교적 지배체계가 붕괴되고 수평적 사회구조의 기반이 만들어진 시기이다.

조선후기 주거건축의 공간특성을 살펴보면 직교축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들 사례는 '回'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며 수평, 수직으로 확장되거나 또는 '回'자형의 조합으로 평면이 구성되어진다. 채분화의 경우 별동조합형의 사례가 주로 나타난다. 이상의 축과 채분화를 통한 분석결과는 조선 중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면형태의 경우 '回'자형 + 기타 평면형태의 조합이 주를 이룬다. 평면의 형태에 있어서 전체적인 형태는 '回'자 형태를 띄고 'ㄱ'자형과 'ㄴ'자형이 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치형식은

위계적 구성형식을 나타내며 또한 마당과 마루는 연계공간과 완충공간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모든 사례에서부터 알 수 있다.

표 10 조선후기의 사례분석

구분	건축사례	평면
조선 후기 (1709 - 1876)	양동 이희태 가옥	
	안동 지례동 오류현	
	서산 김기현 가옥	
	화성 정용채 가옥	

4.2 개항기

개항기는 일본 및 서구열강의 이권침탈과 함께 유리나 시멘트 등의 건축재료와 근대건축문화가 도입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주거형태는 지역의 자영농계층에서 성장한 부농계층을 기반으로 한 서민주거의 유형을 모체로 상류주택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차용하는 형식을 띄었다. 영광 신호준 가옥과 같은 경우 전통건축의 형식을 유지하였으나 근대 건축재료의 도입에 따라 김봉희 가옥과 같은 경우 대청이나 마루와 같은 완충 및 연계공간을 내실화하는 등 전통건축의 형식을 개조하거나 여드만 주택과 같이 서양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표 11 개항기의 사례분석

구분	건축사례	평면
(1876 - 1910)	영광 신호준 가옥	
	보성 이용우 가옥	
	어드만 주택	
	김봉희 가옥	

분석형식별 특성을 살펴보면 축의 사용은 조선시대와 비슷하게 직교축을 사용하며 건물문화형식과 평면형태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건물문화형식은 전통건축의 특성인 채분화와 함께 일부 사례에서는 독립된 건물에 주거의 기능이 모두 담긴 실분화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주거의 내실화가 시작한다. 어드만 주택의 경우 서양건축양식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로 실분화의 특성이 명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평면형태는 '回'자형의 평면형태가 해체되고 'ㄱ'자형, '一'자형 등의 단일건물의 독립성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어드만 주택의 경우 'ㄱ'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어 현대건축 평면형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배치형식의 경우 점차 유교사회를 기반으로 한 수직적 질서가 해체되고 중심공간인 마당이나 거실 등을 통해 공간이 기능적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완충공간이나 연계공간도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서양건축양식을 한 어드만 주택의

경우 기존의 마당이나 마루를 통한 공간의 연계보다는 현관이나 거실 등을 통해 공간의 연결 또는 분배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공존하는 시기의 특성을 타나낸다.

4.3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병참기지화에 따른 군수산업시설 건설,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사업 등에 따라 농촌의 소작농이 도시로 유입하게 되고 도시에는 주거난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주거를 모방한 개량 한옥들이 건설·매매되는 시기이다. 또한 일본은 주택영단을 통해 근대 재료인 시멘트기와나 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근대 주거단지를 공급하기에 이르러 일반시민에게까지 근대적 건축양식이 들어오게 된다. 결국 유교적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실용성을 중심에 둔 가치체제로 변화하게 되고 주거양식 또한 가족중심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표 12 일제강점기의 사례분석

구분	건축사례	평면
일제강점기 (1910 - 1945)	최근배 가옥	
	이영춘 주택	
	오성근 가옥	
	경운동 민익두가	

일체강점기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축의 사용에 있어서는 직교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분화형식의 경우 실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물분화는 건물의 동수가 줄어들거나 개별건물이 실분화를 통해 다양한 주거의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이전 시기보다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개항기를 거치면서 ‘ㄱ’자형, ‘ㄴ’자형, ‘ㄷ’자형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서양 근대건축의 도입으로 주거기능의 내실화와 기능별 공간의 통합·일체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치형식은 중심공간형으로 변화하여 기존의 위계적 공간흐름의 구성방식이 아닌 수평적 공간분배 형식을 나타내게 된다. 완충 및 연계공간은 대청이나 마루와 같은 전통방식의 공간과 거실, 복도 등의 근대적 공간양식이 하나의 주거평면에 혼재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4.4 분석결과

공간특성분석 결과에 따라 그 흐름을 살펴보면, 축의 사용은 조선시대에서 일체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의 양상이 보이지 않았다. 분화형식은 채분화에서 실분화의 경향으로 바뀌며 이와 함께 평면형태도 ‘ㄱ’자형에서 ‘ㄴ’, ‘ㄷ’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치형식에 있어서는 위계적 구성형식에서 중심공간형으로 변화했으며 완충공간 및 연계공간의 역할은 마루나 마당에서 현관, 거실, 복도, 테라스 등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유교적 윤리관에 따른 위계적 공간구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조선시대의 주거건축은 500여년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일본 및 서구 열강의 이권침탈 시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합리성과 경제성에 밀려 획일화된 국제주의 형식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절된 전통주거형식의 현대적 복원과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조선시대 이후 사회적 배경변화에 따른 주거건축의 특성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주거건축의 공간특성 분석을 위해 먼저 조선시대부터 일체강점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사회배경의 변화에 따라 시기구분을 하였고 선행한 시기구분을 통해 남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상위계층의 주거건축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별로 축, 분화형식, 평면형태, 배치방식, 완충공간 및 연계공간 등의 5가지 분석요소를 통해 시대구분별 특성과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는 500여년의 역사를 거치며 지배계층 및 이념의 변화와 정치·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변화에 따른 4단계의 시기구분을 통해 조선시대의 반가형식을 분석하였지만 전통적 주거형식의 채분화 방식이나 ‘ㄱ’자형을 기본으로 한 평면형태, 자연관에 따른 축의 설정, 유교사회를 기반으로 한 위계적 배치형식 등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특이한 특성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완충공간 및 연계공간으로서의 마당과 마루는 조선시대 전반의 공간구성방식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계층 및 지배이념 등의 사회적 변화가 전통주거형식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주거건축의 발전이 도편수 등의 장인들과 양반계층인 건축주와의 관계 속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준다.

2) 조선중기Ⅱ와 조선후기는 성장한 농민들에 의해 사람세력은 약해지고 화폐경제의 발전과 실학사상의 대두로 봉건적 지배체제가 붕괴되는 시기이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부농은 반가의 형식을 모방한 주거형식을 건설하나 유교적 예의체계 형식이 아닌 수평적·실용적 주거구조로의 변화를 추구했다. 따라서 일반적 조선시대의 주거건축형식 내에서 별동형 채분화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평면형태에 있어서는 일반적 ‘ㄱ’자형을 유지하나 ‘ㄱ’자형, ‘ㄴ’자형, ‘ㄷ’자형의 조합을 통해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통적 ‘ㄱ’자형의 중정형 주거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형식 또한 중심공간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위계적 공간구성이 해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항기에는 강한 채분화의 속성을 가지며 마루와 채로 조합되는 형식을 취하던 전통주거 양식이 유리나 시멘트 등의 근대적 재료와 사상의 도입으로 대청이나 마루에 유리문을 달아 개조하는 등 내부중심의 독립적 주거형식으로의 변화가 시도되었다. 이로 인해 채분화의 큰 틀에서 별동형식이 증가하고 근대건축양식의 실분화된 주거사례가 등장하였으며 평면형태에 있어서는 ‘ㄱ’자형의 평면형태가 감소하는 반면 ‘ㄱ’자형, ‘ㄴ’자형의 전통주거사례가 증가하고 ‘ㄴ’자형의 근대건축사례가 등장하는 등 단일건물로서의 독립성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배치형식은 위계적 구성형식과 중심공간형이 동등한 비율로 나타나 유교적 배치형식이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마당이나 마루 등의 완충·연계공간은 지속적으로 활용되나 주거의 내실화에 따라 거실이나 현관 등이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 일체강점기의 변화는 개항기에 비해 보다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본의 병참기치화에 따라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형 개량한옥의 등장과 일본의 주

택영단을 통한 근대적 주거양식의 보급이 그 배경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체적 지배세력을 갖지 못했던 일제강점기는 전통적 주거형식의 주체적 성장보다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도입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실용성에 중점을 둔 실분화형식의 근대적 주거양식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분화의 형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평면형태 또한 'ㄱ'자형, 'ㄴ'자형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완충 및 연계공간의 역할은 마루나 마당에서 거실, 현관, 복도, 테라스 등으로 대체되었으며 배치형식에 있어서도 위계적 구성은 사라지고 대부분이 중심공간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배경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을 통해 건축의 공간특성변화를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 전반적으로는 사회적 배경변화에 따라 일부 형식의 변화는 있으나 전통주거건축 고유의 특성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서구의 건축문화 도입, 정치 및 사회체제의 변화 등에 따라 건축형식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건축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며 발전하며 개인 또는 집단의 창작활동으로서 사회상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김봉렬, “한국건축사의 시대구분 : 건축이론사로서의 제안”, *한국음악사학회*, 24집, p.139.

[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pp.11-15, 1997.

[3] 신영훈, *한국미술사II-건축*, *한국문화대계IV*, 서울 :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p.1130, 1970.

[4] 이기백, *한국사신문*, 일조각, pp.8-9, 1996.

[5] 김봉렬, “한국건축사의 시대구분 : 건축이론사로서의 제안”, *한국음악사학회*, 24집, p.141의 내용 중 기존 연구의 시대구분표를 참조하여 편집함.

[6] 박언곤, *한국건축사강좌*, 문운당, p.36, 1986.

[7]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p.11, 1974.

[8] 신진동,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3, 2008.

[9] 전봉희,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0] 신진동,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1]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2] 전봉희,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25.

[13]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p.22, 2006.

[14]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pp.211-240, 2001.

[15]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pp.165-166, 1993.

[16] 김명선, “한말 지식인들의 재래주택에 대한 인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제12호, p.216, 2005.

[17]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pp.174-175, 1993.

[18]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전국건축문화자산*, 1권-9권, 1999.